

## 부모의 양육분담이 양육부담을 매개로 영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에 미치는 영향: 부-모 상호의존모형 분석

신나은<sup>1)</sup> 김정숙<sup>2)</sup> 박성빈<sup>3)</sup>

### 요약

본 연구는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가 인식한 양육분담과 양육부담이 영아의 미디어 이용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 간 상호의존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어머니가 인식하는 양육분담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 자신의 양육부담이 증가하는 자기효과를 보였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부담 또한 증가하는 상대방효과를 나타냈다. 반면 아버지의 양육분담은 자신과 배우자의 양육부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영아의 미디어 이용시간에는 어머니의 양육부담만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어머니의 양육부담이 높을수록 영아의 미디어 이용시간이 증가하였다. 매개효과 분석 결과 어머니의 양육분담이 어머니의 양육부담을 매개로 영아의 미디어 이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 매개 경로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기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 경험이 부부 간 상호의존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며, 특히 어머니의 양육부담이 영아의 미디어 이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부모 지원 및 영아 미디어 이용 지도 방안 마련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주제어: 양육분담, 양육부담, 영아 미디어 이용,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

## I. 서론

영아기는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보내며, 일상생활을 스스로 조절하거나 위험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아직 발달하지 않아 부모의 밀착된 양육 역할이 필수적이다.

1) 연성대학교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3)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이로 인해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부담은 다른 발달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박새롬·노보람·박혜준 외, 2015).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영아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부모가 함께 양육에 참여하는 균형 있는 양육분담이 중요하다(홍예지·이순형, 2017).

한국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부모 역할이 어머니의 책임으로 여겨져 자녀 양육과 교육은 어머니가 주로 담당해 왔다(문무경·조숙인·김정민, 2016). 그러나 최근에는 자녀 양육에 부모가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하고 있으며(배지희·김신영·이수영, 2016), 아버지도 공동 양육자로서 직접적인 돌봄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김영두·이대균, 2011). 2024 전국보육실태조사 중 가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아는 평일에 어머니와 7.9시간, 아버지와 3.9시간을, 주말에는 어머니와 12.6시간, 아버지와 10.8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효미·김은설·최윤경 외, 2024). 이는 기관 이용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 내 부모 양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아버지의 양육참여 인식 확산에도 여전히 양육부담이 어머니에게 편중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양육분담은 양육에 관한 책임을 배우자와 어떻게 분배하고 협업하는지를 의미하며(Feinberg, Brown, & Kan, 2012), 구체적으로는 부모가 서로 양육을 분담하여 지원하는지, 배우자가 양육으로부터 적절히 휴식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지, 가사와 육아를 균형 있게 분담하는지 등을 포함한다(진선영, 2021). 한편 양육부담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포괄하는 개념으로(Zarit, Reever, & Bach-Peterson, 1980), 양육스트레스, 역할 과중, 심리적 압박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을 지닌다(박현남, 2016). 양육분담과 양육부담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분담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을 감소시키고(김근혜·김혜순, 2013),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며(홍예지·이순형, 2017), 부모가 함께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수록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미경·도현심·김민정 외, 2013). 또한 양육스트레스와 부모 소진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가 배우자의 양육 협력 수준에 따라 조절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권민영·홍정순, 2015). 더불어 어머니의 양육분담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연구(양진희·김영철, 2016; 이성숙, 2018)는 양육분담 불균형이 부모 한쪽의 양육스트레스와 소진 등을 심화시키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의 양육참여와 협력이 균형있는 양육분담을 촉진하고 스트레스와 우울을 완화함으로써 양육부담을 전반적으로 감소시키는 요인이 됨을 시사한다.

한편,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은 자녀 양육에도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TV, 스마트폰, 태

블릿 PC 등 디지털 미디어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영유아기부터 디지털 기기 사용 경험과 사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어린이 미디어 이용 조사(한국언론진흥재단, 2023)에 따르면, 텔레비전을 처음 접하는 시기는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이 26.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세계보건기구(WHO, 2019)는 1세 미만 영아에게 모바일기기, TV, 컴퓨터 등 화면 기반의 수동적 미디어 이용을 허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으며, 2-4세의 경우에도 화면 노출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되 이용 시간이 적을수록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WHO, 2019). 미국소아과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2016)도 18-24개월 이하 영아의 영상미디어 이용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성인이 함께 시청할 것을 권고하였다. 영유아는 주로 가정환경에서 스마트미디어에 노출되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 방식과 심리적 상태는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하지영, 2021). 따라서 부모의 양육 상황과 맥락은 자녀의 미디어 이용 행동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변인이 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녀의 미디어 이용은 부모의 양육분담 및 양육부담 등 양육 관련 변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양육분담과 관련하여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환경 및 스마트폰 과몰입 증상에 모두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오윤경·이미현·최혜순, 2016), 어머니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유아의 TV 이용이 증가한 반면,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이를 조절하여 유아의 TV 이용 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소현·김윤희, 2020). 또 부모의 공동 양육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문제적 미디어 사용 수준이 낮음이 보고되었다(Zhang, Song, & Niu, 2025).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참여 방식과 수준이 자녀의 미디어 이용시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됨을 시사한다.

또한 자녀의 미디어 이용은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가족 갈등, 경제적 부담 등 양육부담을 구성하는 변인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이 증가하였으며(권미경·박현숙·유주희 외, 2016),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과다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준오·김은정, 2019). 특히,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돌봄 부담이 높을수록 부모는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녀에게 미디어 노출을 많이 시킨다는 연구 결과(Kim, Yang, & Lee, 2026), 가족 간의 화목 정도가 낮고 정서적 긴장이 높은 가정 환경에서는 유아의 과도한 미디어 사용이 더 관찰된다는 연구(Yayla, Makas, Yildirim, et al., 2025) 등이 보고된 바 있다. 또한 Lampard, Jurkowski & Davison(2013)는 2-5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미디어 이용에 영향을 주는 변

인을 살펴본 결과, 경제적·시간적 생활 압박과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주변인들로부터 받는 사회·정서적 지지가 낮을수록 미디어 노출을 많이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부모들은 공공장소 등에서 자녀를 달래거나, 가사·직업·대인관계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자녀에게 미디어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오주현·박용완, 2019; 이수미·서현아·한희정, 2014; 이정림, 2014; 한국언론진흥재단, 2023) 부모들은 신체적·심리적으로 양육 환경에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 자녀를 미디어에 노출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부모의 양육분담 수준은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양육부담은 자녀의 미디어 이용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양육분담은 양육 참여와 협력의 수준을 반영하는 구조적 특성인 반면, 양육부담은 양육 과정에서 부모가 경험하는 신체적, 정서적, 관계적,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포괄하는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변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분담은 양육부담을 통해 자녀 양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가질 수 있으며, 부모의 양육분담이 영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직접효과로 설명되기보다 양육부담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 경로를 통해 작동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고, 이러한 매개과정을 검증함으로써 부모의 양육환경이 영아의 미디어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보다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다.

특히 한 부모의 양육분담과 양육부담은 상대방의 양육부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호영향을 동시에 고려하는 분석이 필요하다. 실제 가정 내 양육은 부모가 상호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한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분담과 양육부담은 서로의 양육행동과 심리적 경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가정 내 양육분담은 사회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성역할관의 영향을 받으며, 개인의 성역할 정체성은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동시에 배우자에 대한 기대를 형성함으로써 배우자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조윤진, 2017). 이처럼 부부와 같이 서로 밀접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서는 독립성이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를 분석단위로 삼아야 함이 제안된다(Kenny, 1996). 이를 위해 부부 한 쌍을 대상으로 양육참여의 역동성을 고려하여 분석할 수 있는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임선아, 2018; Cook & Kenny, 2005). APIM은 자신의 특성이 자신에게 미치는 자기효과(actor effect)와 상대방에게 미치는 상대방효과(partner effect)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Cook & Kenny, 2005).

그러나 기존의 부모 양육 관련 연구들은 부 또는 모를 각각 독립적인 분석 단위로 설정

한 경우가 많아, 부모의 양육분담이 상대방의 양육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자녀의 미디어 이용과 관련해서도 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나 양육효능감과 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권미영·정윤주, 2018; 박윤미·강민주, 2020)가 대부분으로, 부와 모의 양육 상황이 상호의존적으로 영아의 미디어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가정 내 부부 간 정서적 어려움이 상호 지원을 통해 완충될 수 있다는 점(김낙홍, 2011; 정미라·김지원·이영은, 2015)을 고려할 때, 영아의 미디어 이용은 부부의 양육 맥락을 함께 고려하는 관점에서 탐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동일 가정 내에서 부와 모의 양육분담과 양육부담이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와 모를 하나의 상호의존적 체계로 보고 APIM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분담이 각자의 양육부담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양육부담을 매개로 영아의 미디어 이용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와 모의 양육분담이 부와 모 각각의 양육부담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와 모의 양육분담과 양육부담은 상호의존적으로 영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중 2차년도 (2023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2차년도 자료를 선택한 이유는 해당 시점부터 패널 아동의 미디어 이용 조사가 시작되어 부모의 양육 관련 자료와 영아의 미디어 이용시간을 함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미디어 이용시간은 주양육자 설문 자료를 활용하고, 양육분담 및 양육부담 변인은 동일 가정 내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응답한 부모 설문 자료를 활용하였다.

2차년도 원자료의 조사 대상은 총 2,565가구였다. 분석 대상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쌍둥이 가구의 경우 주요 변수 값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어 가구당 1건만 분석에

포함하였다. 둘째, APIM이 부모 간 짝 자료(pairwise data)를 전제로 하는 분석 방법임을 고려하여,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형제자매 구성에 따른 가정 내 양육환경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자녀 수를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으며, 가구형태 및 가구원 수 정보를 바탕으로 자녀 수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가구형태의 기타에 응답하여 자녀수 확인이 불가능한 3건은 제외하였다. 이 외에도 가구의 경제적·사회적 맥락을 통제하기 위하여 맞벌이 여부, 부와 모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 사회적 지원 인원, 월평균 가구소득을 추가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다. 최종 분석에는 총 1,416쌍(부 1,416명, 모 1,416명)의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이는 전체 표본의 55.2%에 해당한다. 자녀의 평균 월령은 19.01개월이며,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부모 개별 특성		빈도(%)		부모 공통 특성		빈도(%)
		부	모			
연령대	20세 미만	0(0.0)	1(0.1)	맞벌이	해당	733(51.8)
	20대	71(5.0)	144(10.2)		비해당	683(48.2)
	30대	1,006(71.0)	1,117(78.9)	자녀 성별	남	691(48.8)
	40대	317(22.4)	153(10.8)		여	725(51.2)
	50세 이상	15(1.1)	1(0.1)	쌍둥이 가구	해당	54(3.8)
	무응답	7(0.5)	0(0.0)		비해당	1,362(96.2)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55(18.0)	197(3.9)	자녀 수	1	800(56.5)
	전문대학 졸업	239(16.9)	262(18.5)		2	501(35.4)
	대학교 졸업	797(56.3)	825(58.3)		3	103(7.3)
	대학원 졸업	125(8.8)	132(9.3)		4	12(0.8)
	전체	1,416(100)	1,416(100)		전체	1,416(100)

## 2. 주요 변인

### 가. 부모의 양육분담

부모의 양육분담은 부모가 인식하는 자녀 양육 활동에 대한 부모 간 분담 정도를 의미한다. 해당 문항은 ‘현재 아이 양육과 가사를 어떻게 분담하고 계십니까? 합이 10이 되도록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양육분담 비율만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분담은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본인의 양육분담 비율, 어머니의 양육분담은 어머니가 인식한 어머니 본인의 양육분담 비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와 모가 인식한 양육분담을 각각 독립된 변인으로 모형에 포함함으로써, 부

모가 인식한 자신의 양육분담 수준이 자기 자신의 양육부담뿐 아니라 배우자의 양육부담 및 자녀의 미디어 이용시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동시에 검증하고자 하였다.

#### 나. 부모의 양육부담

부모의 양육부담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신체적·정서적·사회적·경제적·관계적 부담을 의미한다. 세부문항은 신체적 부담(육체적 피로, 휴식시간 없음 등), 정서적 부담(양육스트레스 등), 사회적 고립(지인, 이웃과의 소통기회 부족 등), 경제적 부담(교육비, 의료비 등), 가족관계의 어려움(육아 관련 배우자와의 의견 불일치 등)으로 구성되었다. 해당 문항들은 Likert 4점 척도(1= 전혀 부담스럽지 않음, 4= 매우 부담스러움)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부담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7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잠재변인으로 설정하여 부모 각자가 인식한 양육부담이 영아의 미디어 이용시간에 미치는 직접 효과뿐 아니라, 부모 간 상호의존적 영향 구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였다.

#### 다. 영아의 미디어 이용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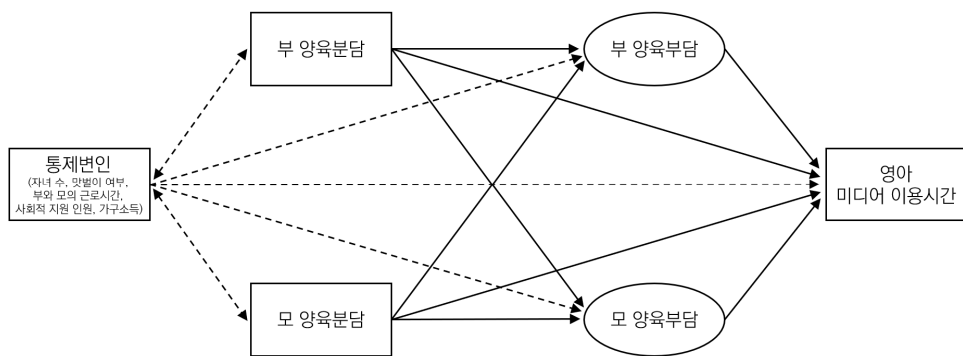
영아의 미디어 이용시간은 주양육자 설문지에 포함된 '아동의 미디어 이용'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문항 중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문항(문항 3번)을 사용하였으며, 미디어 이용 목적별로 제시된 동영상 시청, 게임·놀이, 교육용 앱 활용, 기타 활동의 이용 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주 양육자가 응답한 주중 1일 평균 이용 시간(분)과 주말 1일 평균 이용 시간(분)을 바탕으로, 다음의 산출식을 적용하여 영아의 일평균 미디어 이용 시간을 산출하였다. 산출된 일평균 미디어 이용시간은 영아의 전반적인 미디어 노출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로 활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결과 변인으로 간주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text{미디어 이용시간} = \frac{(\text{주중 1일 평균 이용시간} \times 5) + (\text{주말 1일 평균 이용시간} \times 2)}{7}$$

### 3. 연구모형

본 연구는 부모가 인식한 자신의 양육분담 수준이 자신의 양육부담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함께, 상대방의 양육부담에 미치는 상대방효과를 동시에 검증할 수 있도록 APIM을 적

용하였다. 양육분담과 양육부담이 자녀의 미디어 이용 시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더불어, 양육분담이 양육부담을 매개로 자녀의 미디어 이용 시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개 경로를 함께 설정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경험이 자녀의 미디어 이용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형제자매 구성에 따른 가정 내 양육 환경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자녀 수를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으며, 가구의 경제적·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맞벌이 여부, 부와 모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 사회적 지원 인원, 월 평균 가구소득을 추가로 통제하였다. 통제변인의 모형 설정 방식은 이진실(2019)의 연구를 참고하여, 통제변인이 외생변인과 상관을 가지면서 매개변인과 결과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CMOC(correlated mediator-outcome control) 모형의 방식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통제변인들이 부모의 양육분담, 양육부담과 영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된 상태에서 주요 경로를 추정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경험이 영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을 보다 명확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주1: 도식의 간명성을 위해 모형에 포함된 공분산을 그림에서는 생략하였음.

주2: 통제변인과 연구변인 간의 경로는 점선으로 표시하였음.

한편, 본 연구에서는 동일 가정 내 부와 모의 양육 경험이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다는 점을 반영하여, 변인 간 공분산을 설정하였다. 먼저, 외생변인인 부와 모의 양육분담 간 공분산을 허용하여 동일 가정 내 부부의 양육분담 인식이 상호 연관될 수 있음을 모형에 반영하였다. 또한 양육부담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은 동일한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측정변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양육부담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에 대해 남편과 아내가 응답한 동일 문항 간 오차공분산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모형 설정을 통해 양육부담의 개인적 특성과 가구·관계 수준의 공유된 특성을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부와 모의 양육분담과 양육부담 간의 상호의존적 관계와 이러한 변인들이 영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31.0과 AMOS 31.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행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인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여 정규성 가정을 검토하였다. 둘째, APIM 적용의 전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부와 모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동일 가정 내 부모 간 양육분담 변수 및 양육부담 중 가구 단위로 공유될 가능성이 높은 하위요인에 대해 공분산을 설정하였다. 셋째,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활용하여 APIM을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부와 모의 양육분담을 외생변수로, 부와 모의 양육부담을 매개변수로, 영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을 종속변수로 포함하고 자녀 수, 맞벌이 여부, 부와 모의 근로시간, 사회적 지원 인원, 가구소득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여 구조모형을 설정함으로써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동시에 추정하였다. 넷째, 부와 모의 양육분담과 양육부담이 상호의존적으로 영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에 미치는 구조적 경로와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인의 일반적 특성과 정규분포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술통계 결과, 영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의 경우 왜도와 첨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 정규분포 가정이 위반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관분석 시 부트스트랩 1,000회를 실시하여 95% 신뢰구간을 추정하였으며, 표본 수가 충분히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변인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양육분담 평균은 아버지는 3.07점, 어머니는 6.97점으로, 양육분담이 어머니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부와 모의 양육분담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부와 모의 양육부담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부모 각각

의 양육분담과 양육부담 간에는 전반적으로 유의한 정적 또는 부적 상관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부의 양육분담은 부의 양육부담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모의 양육부담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모의 양육분담은 부와 모의 양육부담 모두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모의 양육분담 및 부와 모의 양육부담은 영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다만 일부 변인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이후 매개효과 분석을 통해 구조적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N=1,416)

변인	양육분담		양육부담		영아 미디어 이용시간	
	부	모	부	모		
양육분담	부	1				
	모	-.63***	1			
양육부담	부	-.04	.10***	1		
	모	-.11***	.18***	.42***	1	
영아 미디어 이용시간		-.05	.07**	.06*	.10***	
<i>M</i>		3.07	6.97	2.13	2.33	35.16
<i>SD</i>		1.46	1.49	.56	.57	43.15
<i>Skew</i>		.80	-.70	.05	.01	2.34
<i>Kurt</i>		1.19	.71	-.13	-.06	8.85

\* $p < .05$ , \*\* $p < .01$ , \*\*\* $p < .001$

주: 1) [95% CI]=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없으면 유의함.

2) 양육분담 점수의 범위는 0~1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부모가 인식한 자신의 양육분담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 2. 연구모형 검증 결과

### 가.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양육부담은 부와 모 각각에 대해 신체적 부담, 정서적 부담, 사회적 부담, 경제적 부담, 관계적 부담의 5개 문항을 지표로 하는 잠재변수로 설정하였다. 반면, 양육분담과 영아의 미디어 이용시간은 각각 단일 지표로 측정된 관측변수이므로 잠재변수로 구성하지 않고 구조모형에 직접 투입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부모의 양육부담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은 .47~.79 범위로 나타났다. 또한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는 부 .75, 모 .74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평균분산추출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은 부모 모두 .38로 나타났다. 비록 AVE는 권장 기준인 .50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각 문항이 양육부담의 하위 차원을 반영하는 이론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고, 내적 합치도 또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되어 최종 분석에 포함하였다.

〈표 3〉 양육부담 잠재변수의 측정모형 검증 결과

측정문항		표준화 요인부하량	CR	AVE	측정문항		표준화 요인부하량	CR	AVE
부	신체적	.68	.75	.38	모	신체적	.65	.74	.38
	정서적	.78				정서적	.79		
	사회적	.56				사회적	.60		
	경제적	.50				경제적	.51		
	관계적	.52				관계적	.47		

#### 나.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chi^2$  검증과 함께 comparative fit index(CFI), Tucker-Lewis index(TLI), root-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지수를 활용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chi^2$  검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chi^2=667.744$ ,  $df=103$ ,  $p<.001$ ), 이는 표본 수가 큰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흔히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는 .062(90% CI [.058, .067])로 양호한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증분적 적합도 지수인 CFI는 .924로 기준치 .90 이상을 충족하였으며, TLI는 .875로 통상적 기준치인 .90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였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모형은 APIM 구조에 매개경로와 통제변인을 함께 포함한 비교적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 적합도 지수가 다소 보수적으로 산출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표 4〉 연구모형 적합도

$\chi^2(df)$	CFI	TLI	RMSEA
663.274***(102)	.925	.874	.062[.058, .067]

\*\*\* $p<.001$

주: [90% CI]=90%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 3.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 검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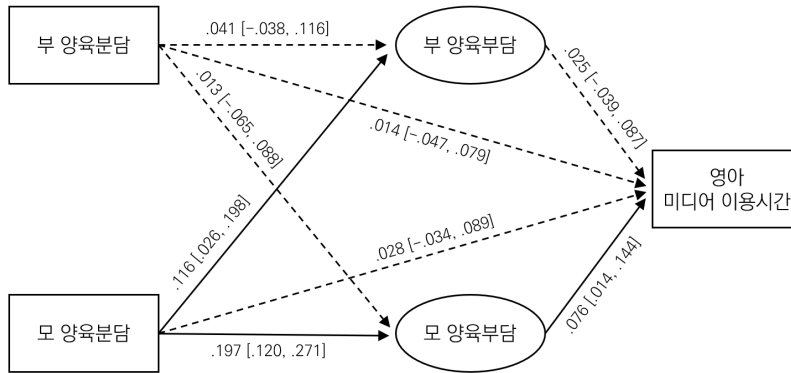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부모 간 양육분담과 양육부담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APIM을 적용하여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기효과 측면에서, 어머니가 인식한 자신의 양육분담 정도는 어머니의 양육부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197, p<.001$ ). 즉, 어머니가 스스로 인식하는 양육분담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부담 또한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반면, 아버지가 인식한 자신의 양육분담은 아버지의 양육부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beta=.041, p>.05$ ). 다음으로 상대방효과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가 인식한 자신의 양육분담은 아버지의 양육부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116, p<.01$ ). 이는 어머니가 자신이 더 많은 양육을 담당하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아버지가 지각하는 양육부담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반면, 아버지가 인식한 자신의 양육분담은 어머니의 양육부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013, p>.05$ ). 한편, 부와 모의 양육부담이 영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부담만이 영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076, p<.05$ ). 반면, 아버지의 양육부담은 영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beta=.025, p>.05$ ). 또한 부와 모의 양육분담은 영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구조모형의 직접(자기-상대방) 효과

경로	Estimate		S.E.	C.R.
	B	$\beta$		
[양육분담 → 양육부담]				
부 양육분담 → 부 양육부담	.011	.041	.010	1.056
부 양육분담 → 모 양육부담	.004	.013	.013	.345
모 양육분담 → 부 양육부담	.029	.116	.010	2.936**
모 양육분담 → 모 양육부담	.064	.197	.013	4.988***
[양육부담 → 영아 미디어 이용시간]				
부 양육부담 → 영아 미디어 이용시간	2.854	.025	3.460	.825
모 양육부담 → 영아 미디어 이용시간	6.779	.076	2.763	2.453*
[양육분담 → 영아 미디어 이용시간]				
부 양육분담 → 영아 미디어 이용시간	.422	.014	1.004	.420
모 양육분담 → 영아 미디어 이용시간	.824	.028	1.022	.807

\* $p<.05$ , \*\* $p<.01$ , \*\*\* $p<.001$

주: 본 모형은 자녀 수, 맞벌이 여부, 부와 모의 근로시간, 사회적 지원 인원, 가구소득을 통제한 상태에서 추정된 결과임.



[그림 2] 구조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 주: 1) 자녀 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추정된 표준화 계수를 제시하였음.
- 2) 실선은 유의한 경로,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의미함.
- 3) 도식의 간명성을 위해 모형에 포함된 공분산을 그림에서는 생략하였음.
- 4) [95% CI]=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없으면 유의함.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APIM에 나타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와 상대적 크기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동일성 제약모형과 자유모형 간  $\chi^2$  차이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상대방효과에 등가제약을 부과한 경우 자유모형과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Delta\chi^2=2.453$ ,  $\Delta df=1$ ), 부와 모의 상대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자기효과에 등가제약을 부과한 경우에는 모형 적합도가 유의하게 저하되어( $\Delta\chi^2=11.014$ ,  $\Delta df=1$ ), 부와 모의 자기효과 크기는 서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과변수별 분석에서도 부와 모 모두에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부:  $\Delta\chi^2=4.470$ ,  $\Delta df=1$ ; 모:  $\Delta\chi^2=27.126$ ,  $\Delta df=1$ ), 이는 자신의 양육분담이 자신의 양육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부와 모 간에 차이를 보이는 반면, 상대방의 양육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유사함을 시사한다.

〈표 6〉 자유모형과 등가제약 모형 간  $\chi^2$  차이검정 결과

모형	$\chi^2(df)$	CFI	TLI	RMSEA	$\Delta\chi^2(\Delta df)$
자유모형	663.274***(102)	.925	.874	.062	
자기효과 등가제약	674.288***(103)	.924	.873	.063	11.014***(1)
상대방효과 등가제약	665.727***(103)	.925	.875	.062	2.453(1)
부 양육부담에 대한 등가제약	667.744***(103)	.924	.875	.062	4.470*(1)
모 양육부담에 대한 등가제약	690.400***(103)	.921	.870	.063	27.126***(1)

\* $p < .05$ , \*\* $p < .01$ , \*\*\* $p < .001$

주:  $\Delta df=1$ 일 때,  $\Delta\chi^2$ 이 3.84 이상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함.

#### 4. 매개효과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부와 모의 양육분담이 양육부담을 매개로 하여 영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을 5,000회 실시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95% 신뢰구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간접효과로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 어머니가 인식한 자신의 양육분담은 어머니의 양육부담을 매개로 하여 영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018, 95% CI [.005, .035]). 이는 어머니가 인식하는 양육분담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부담이 증가하고, 이러한 부담 증가가 영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 증가로 이어지는 간접적 경로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반면, 아버지가 인식한 자신의 양육분담을 출발점으로 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부와 모의 양육분담이 상대방의 양육부담을 매개로 하여 영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표 7〉 구조모형의 매개효과

경로	Estimate		95% CI	
	B	$\beta$	lower	upper
모 양육분담 → 모 양육부담 → 영아 미디어 이용시간	.517	.018	.005	.035

주: 95% 신뢰구간은 부트스트랩 5,000회 추정을 통해 산출됨.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분담과 양육부담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가 영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와 모의 양육분담이 부와 모 각각의 양육부담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의 양육분담은 자신의 양육부담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은 반면, 아버지의 양육분담과 어머니의 양육부담 간에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단순한 역할 분담을 넘어 어머니의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사회적 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고 심리적 안

녕감을 높이며(박성덕·서연실, 2016; 정미라·김민정·이방실, 2015), 아버지의 양육분담이 자신의 양육스트레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상대방효과가 있다는 결과(양진희·김영철, 2016)는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반면, 어머니의 양육분담은 자신의 양육부담 및 아버지의 양육부담 모두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는데, 이는 어머니에게 양육분담이 집중될수록 부와 모 모두에게 양육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어머니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나, 어머니에게 편중된 양육 구조는 가정 전체의 양육부담을 높이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어머니의 양육 책임 및 역할 편중이 가정 내 정서적 분위기와 공동양육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낙홍, 2011; 정미라·김지원·이영은, 2015; Schoppe-Sullivan, Brown, Cannon, et al., 2008)와 맥을 같이한다.

더불어, APIM을 적용하여 변수 간 인과적 방향성에 대한 검증을 통해 상관분석에서 나타난 패턴이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작동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버지의 양육분담은 자신과 배우자의 양육부담 모두에 유의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상관분석결과 아버지의 양육분담이 어머니의 양육부담과 부적 상관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APIM 분석결과에서는 아버지의 양육분담이 어머니의 양육부담 형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어머니의 양육부담은 부부관계의 질, 양육 참여의 방식과 맥락, 사회적 지지 등 본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은 변수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양진희·김영철, 2016; Gao & Ruan, 2022),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분담이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해서 실질적인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주관적 인식을 기반으로 측정된 양육분담 변수가 사용되었으며, 부부관계의 질, 양육효능감, 우울감 등 양육 맥락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수가 통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석에 신중함이 요구되며,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 변수를 포함한 보다 정교한 모형 검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면, 어머니의 양육분담은 자신의 양육부담에 자기효과를, 아버지의 양육부담에 상대방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어머니에게 편중된 양육 구조가 단순한 역할 불균형을 넘어, 어머니 자신의 부담뿐 아니라 부부 간 공동양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가정 내 양육 긴장감을 높이는 연쇄적 기제로 작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문지기역할(maternal gatekeeping) 개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지기역할이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촉진하거나 제한하는 어머니의 신념과 행동으로(Allen & Hawkins, 1999; Schoppe-Sullivan, Brown, & Cannon, et al., 2008), 이중 아버지의 양육 시도를 비판하고 통제하는 문닫기(gate-closing) 행동은 아버지가 자신의 양육 기술을 발전시키고 참

여기회의 확대를 제한함으로써 공동양육을 어렵게 할 수 있다(De Luccie, 1995; Fagan & Barnett, 2003).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분담 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부담도 증가하는 상대방효과가 나타난 것은, 어머니가 양육을 주도하고 통제하는 구조 속에서 아버지가 양육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한 채 부담감만 가중되는 방식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어머니에게 양육분담이 가중될수록 부부 간 갈등 및 공동양육의 질 저하와 연관된다는 선행연구(Schoppe-Sullivan, Brown, & Cannon, et al., 2008)는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이와 더불어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의 크기 검증 결과, 어머니의 양육분담이 자신의 양육부담에 미치는 자기효과는 아버지보다 유의하게 큰 반면, 상대방효과의 크기는 부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부와 모의 양육분담이 자신의 양육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 간에 차이가 있으나, 한쪽의 분담 정도가 상대방의 양육부담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부와 모 모두에게 비슷하게 작동함을 의미한다.

둘째, 부와 모의 양육분담과 양육부담이 영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머니의 양육부담만이 영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모의 스트레스, 피로감, 부담감이 유아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선행연구(권미경·박현숙·유주희 외, 2016; 오주현·박용완, 2019; 하지영, 2021)와 맥을 같이한다. 이는 가정 내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부담이 영유아를 돌보는 행위, 심리적 상태 등에 영향을 주어 미디어의 노출시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미디어 이용이 줄어든다는 연구(박윤미·강민주, 2020)를 고려하면, 어머니의 양육부담 증가는 심리적 소진과 효능감 저하로 이어져 영아의 미디어 노출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아버지의 양육부담은 영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보다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연구(최지훈·안선희, 2020)와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기 가정에서 양육분담과 양육부담이 부모 간 상호의존적으로 작동하되, 영아의 미디어 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로는 어머니의 양육부담을 중심으로 형성됨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어머니의 양육분담은 어머니의 양육부담을 매개로 영아의 미디어 이용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양육분담이 미디어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양육부담을 통해 간접적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는, 양육분담이 가정의 우울감과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고은경, 2017; 오영은·이정화, 2020; 홍석영, 2020)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또한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이 증가하고(권미경·박현숙·유주희 외, 2016),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스마트폰 의

존이 낮아지며(박윤미·강민주, 2020), 부모의 놀이 참여가 높을수록 자녀의 스마트 미디어 몰입 경향이 낮다는 연구(김금옥·정희정, 2019; 마은실·정윤경, 2020)와도 부분적으로 맥을 같이한다. 즉, 어머니의 양육부담은 자기 자신의 양육분담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렇게 형성된 부담감이 영아의 미디어 노출로 이어지는 매개 과정을 구조적 모형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차별점을 지닌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분담은 어머니의 양육부담과 아버지의 양육부담 모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부담은 영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에 영향을 준다. 이는 가정 내 양육 구조에서 어머니가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어머니의 양육분담 편중은 부부 간 양육부담에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분담은 양육부담을 매개로 영아의 미디어 이용에 영향을 준다. 아버지의 양육분담은 어머니의 양육부담에 상대방효과를 갖지 않는 반면, 어머니의 양육분담만이 부와 모의 양육부담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였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분담이 가정 내 양육분담 구조를 형성하는 핵심 요인으로, 양육부담을 매개로 영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로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 자료를 활용하였으므로, 향후 패널자료의 특성을 반영한 종단연구를 통해 변인 간 상호적 관계를 연속성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분담 수준에 따른 각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양육분담 정도에 따른 집단별 영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에 대한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녀 수, 맞벌이 여부, 근로시간, 사회적 지원 인원, 가구소득을 통제하였으나, 부부관계의 질, 양육효능감, 우울감, 자녀의 기질 및 건강상태 등 양육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 변인 및 영아 관련 변인은 포함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을 추가로 고려한 보다 포괄적인 모형 검증이 필요하다.

##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영아기 양육부담이 어머니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분담은 부와 모의 양육부담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분담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역사회 돌봄, 시간제 보육, 방문형 돌봄 서비스 등을 확대해 영아기 가정에 대한 지역 내 돌봄 지원 인프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단시간 보육이 가능하도록 시간제 보육이나 방문형 아이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별 공급격차, 이용가능 시간의 제한, 복잡한 예약 절차 등으로 실제 활용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제도의 이용 문턱을 낮추고 즉시성, 접근성,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일상의 양육돌봄과 긴급돌봄을 구분하여 영아 전용 긴급 돌봄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거나, 시간제 보육 예약이나 연계 시스템을 단순화하여 보호자가 당일이나 전일에 쉽게 신청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양육부담은 신체적 피로, 심리적 어려움 외에도 경제적 부담, 사회적 고립 등 다차원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정부가 추진 중인 양육 부담 경감 정책 전반의 연계성과 효과성을 점검하고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부의 양육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양육분담은 단순히 시간 배분이 아니라 부모 간 역할 협력과 책임 공유의 문제이므로, 부모 교육에 공동책임, 갈등 조정, 가정 내 역할 재조정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 육아휴직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 이용은 여성 중심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한국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는 전통적인 성 역할기대나 성 고정관념에 따라 양육하는 아버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이 미쳤을 수 있다. 따라서 가정 내에서는 어머니가 양육의 주도권과 통제권을 내려놓고 부와 협력적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아버지가 실질적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 양육 프로그램, 아버지 대상 부모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독일 베를린 파더센터는 ‘돌보는 남성성’, ‘돌보는 아버지 역할’의 관점에서 남성양육자를 위해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중인 아버지들이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다른 육아휴직중인 남성들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이나련·백소운, 2024).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남성의 양육분담과 참여를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집중된 과도한 양육상황을 완화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 더불어 아버지의 실질적인 양육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아버지 육아휴직의 사용 장벽을 낮추고 유연근무, 출퇴근 탄력제, 단기 돌봄휴가 등의 근로환경 및 제도적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영아의 미디어 사용과 관련하여 부부 공동 참여를 기반으로 하되, 어머니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설계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영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에는 어머니의 양육부담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영아기 자녀의 일상적 돌봄과 미디어 이용 환경에서 어머니가 담당하는 역할의 비중이 여전히 크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따라서 영아기 가정을 대상으로 한 부부 단위 접근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분담 정도가 자신의 양육부담뿐 아니라 배우자인 아버지의 양육부담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호의존적 특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영아기 가정을 위한 정책은 특정 부모 개인이 아닌 부부 공동 단위를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영아의 미디어 이용은 단순한 미디어 사용의 통제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양육분담 구조와 양육 부담의 맥락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양육지원과 부모 상담, 미디어 교육을 각각 분절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상호 연계된 통합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현행 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이 단순한 이용 제한 권고에 머물고 있다면, 이제는 실제 어머니들이 어떠한 양육 상황과 부담 속에서 영아에게 미디어를 활용하게 되는지 등 미디어를 보조적 돌봄 수단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실제 양육 맥락을 반영한 상담과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영아의 미디어 사용은 부모의 양육 현실을 고려하되, 특히 어머니의 양육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과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은경(2017).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가치에 대한 인식 및 배우자 양육분담이 가족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에 대한 다중집단비교. 인지발달중재학회지, 8(3), 1-18.
- 권미경·박현숙·유주희·한경옥(2016). 유아기 스마트폰 과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23(4), 121-138.
- 권미영·정윤주(2018).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 양육효능감, 양육행동과 유아의 스마트폰 의존 간 관계. 놀이치료연구, 21(1), 153-169.
- 권민영·홍정순(201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부모 소진 : 배우자 양육 협력으로 조절된 양육 효능감의 매개효과. 열린부모교육연구, 17(2), 1-22.
- 김근혜·김혜순(2013). 만 5세 자녀를 둔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 아동교육, 22(4), 111-129.
- 김금옥·정희정(2019).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8(4), 99-118.

- 김낙홍(2011). 바람직한 아버지의 역할과 역할수행의 어려움, 사회적 지원에 대한 고찰.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2), 79-98.
- 김영두·이대균(2011). 초보 아버지들의 양육특성과 아버지 됨의 변화과정.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2(1), 353-380.
- 마은실·정윤경(2020). 어머니 스마트폰중독경향성이 유아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놀이참여도의 매개효과. 발달지원연구, 9(1), 85-100.
- 문무경·조숙인·김정민(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6-21.
- 박새롬·노보람·박혜준·이순형(201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과 영유아의 기질 및 내재화 문제의 구조관계: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집단분석. 육아정책연구, 9(1), 119-148.
- 박성덕·서연실(2016). 어머니가 인지한 아버지 양육참여 및 부부갈등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6(2), 193-212.
- 박윤미·강민주(2020).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부적절한 스마트기기 허용 동기 및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이 마음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아동학회지, 41(6), 9-24.
- 박현남(2016). 취업모의 양육부담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배지희·김신영·이수영(2016).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아버지 참여에 대한 아버지들의 경험과 기대. 유아교육연구, 36(2), 271-294.
- 양진희·김영철(2016). 유아부모의 가족 상호작용, 양육분담, 양육스트레스 간 관계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7(3), 81-106.
- 오영은·이정화(2020). 부부간 양육분담과 가사분담 지각이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맞벌이와 홀벌이 부부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31(4), 625-644.
- 오윤경·이미현·최혜순(2016).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스마트폰 과몰입 간의 관계. 어린이미디어연구, 15(4), 169-191.
- 오주현·박용완(2019). 영유아의 스마트 미디어 사용 실태 및 부모 인식 분석. 육아정책연구, 13(3), 3-26.
- 이나련·백소운(2024). 남성양육지원을 위한 독일 파더센터 사례 및 시사점. 이슈분석 제294호(24-16), 경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이성숙(2018). 모(母)가 지각한 가사 및 양육분담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 : 학부모효능감의 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 이소현·김윤희(2020). 어머니의 양육참여가 유아의 미디어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버지

- 양육참여의 조절 효과. *어린이미디어연구*, 19(2), 1-16.
- 이수미·서현아·한희정(2014).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실태 및 어머니의 인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2), 111-131.
- 이정림(2014). 영유아 스마트폰 노출 실태 및 보호대책, 이슈페이퍼 2014-14.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진실(2019). 매개변인이 포함된 구조방정식모형에서 공변인 통제를 위한 모형설정 방법 비교: 모의실험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30(3), 5-32.
- 임선아(2018).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자녀의 행복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9(1), 49-59.
- 정미라·김민정·이방실(2015). 어머니 문지기 역할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행동 간의 관계: 부부 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2), 355-373.
- 정미라·김지원·이영은(2015). 12개월 첫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양육 어려움과 그 의미.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6(2), 255-281.
- 조윤진(2017).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부모역할신념과 어머니 문지기역할, 부부 공동양육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논문.
- 조준오·김은정(2019). 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 미디어중독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 및 조절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9), 1189-1208.
- 진선영(2021). 부모공동양육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영유아기 자녀의 어머니용. 박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대학원
- 최미경·도현심·김민정·김나나(2013). 부모공동양육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동 간의 관계, *가정과삶의질연구*, 31(2), 25-39.
- 최지훈·안선희(2020).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스트레스, 남편의 양육참여가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가정과삶의질연구*, 38(4), 45-57.
- 최효미·김은설·최윤경·김동훈·김지현·김자연·조혜주(2024). 2024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교육부, 육아정책연구소.
- 하지영(2021).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스마트미디어 관련 연구 동향 분석. *열린부모교육연구*, 13(3), 187-213.
- 한국언론진흥재단(2023). 2023 어린이 미디어 이용 조사 결과보고서.
- 홍석영(2020). 부모의 양육분담이 부모-자녀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매개모델. *열린유아교육연구*, 25(4), 55-78.
- 홍예지·이순형(2017).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가족 응집성과 유연성 및 온정적 양육행동 간의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 검증. *아동학회지*, 38(2), 37-50.

- Allen, S. M., & Hawkins, A. J. (1999). Maternal gatekeeping: Mothers' beliefs and behaviors that inhibit greater father involvement in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1), 199-212.
-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2016). Media and young minds. *Pediatrics*, 138(5), e20162591.
- Cook, J. L., & Kenny, D. A. (2005).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 model of bidirectional effects in developmental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2), 101-109.
- De Luccie, M. F. (1995). Mothers as gatekeepers: A model of maternal mediators of father involvement.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6(1), 115-131.
- Fagan, J., & Barnett, M.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gatekeeping, paternal competence, mothers' attitudes about the father role, and father involvement. *Journal of Family Issues*, 24(8), 1020-1043.
- Feinberg M. E., Brown L. D., & Kan M. L. (2012). A Multi-Domain Self-Report Measure of Coparenting.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12(1), 1-21.
- Gao, M. G., & Ruan, H. (2022). Work-family policies and gender inequalities in childcare time. *Socius*, 8, 23780231221142677.
- Kenny, D. A. (1996). Models of nonindependence in dyadic research.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3, 279-294.
- Kim, J. Y., Yang, A. J., & Lee, H. E. (2026). Parental Influence on Children's Media Use in South Korea: National Population-Based Study. *JMIR Human Factors*, 13(1), e75292.
- Lampard, A. M., Jurkowski, J. M., & Davison, K. K. (2013). The family context of low-income parents who restrict child screen time. *Childhood Obesity*, 9(5), 386-392.
- Schoppe-Sullivan, S. J., Brown, G. L., Cannon, E. A., Mangelsdorf, S. C., & Sokolowski, M. S. (2008). Maternal gatekeeping, coparenting quality, and fathering behavior in families with infant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3), 389.
-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2019). Guidelines on physical activity, sedentary behaviour and sleep for children under 5 years of age. <https://iris.who.int/handle/10665/311664>
- Yayla, İ. E., Makas, S., Yıldırım, S., Dombak, K., & Çelik, E. (2025). From stress to screen: Family factors on the path to problematic media use in

children aged 4-11. *Frontiers in Psychology*, *16*, 1699094.

Zarit, S. H., Reever, K. E., & Bach-Peterson, J. B. (1980). Relatives of the impaired elderly: Correlates of feelings of burden. *The Gerontologist*, *20*(6), 649-655.

Zhang, Y., Song, K., & Niu, G. (2025). Family dynamics and digital distractions: A survey-based study on how co-parenting and parental phubbing shape preschoolers' media use. *Behavioral Sciences*, *15*(6), 752.

- 논문접수: 2월 9일 / 수정본접수: 4월 9일 / 게재 승인: 4월 14일
- 교신저자: 김정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d2011032@knou.ac.kr

## Abstract

### Effects of Parental Division of Childcare on Infants' Media Use Time through Parenting Burden: An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nalysis

Naeun Shin, Jungsuk Kim, and Sungbin Park

Using data from the second wave of the “Korean Early-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anel,” this study examined, from a dyadic mother-father perspective, how parents’ perceived division of childcare and parenting burden influences infants’ media use time.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greater the division of childcare as perceived by mothers, the greater their own parenting burden (significantly positive actor effect) and that of their spouse (significantly positive partner effect), whereas fathers’ perceived division showed no significant effects on either burden. The greater mothers’ parenting burden, the longer infants’ media use time, whereas fathers’ burden showed no significant effect. Mothers’ perceived division of childcare showed a significant self-mediation effect on infants’ media use time through mothers’ parenting burde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arents’ caregiving experiences in families with infants are shaped within an interdependent spousal context and that mothers’ parenting burden is closely linked to infants’ media use.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to inform parental support policies and guidance for infants’ media use.

Keyword: childcare division, parenting burden, infants’ media us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